



# 정교회주보

제2518호  
2025년 3월 30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 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제7조 • 조과 복음 7)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수도자 찬양송 ..... 23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6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사진 설명

### 성창(聖槍)

**성**창(사진 오른쪽)은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니 이 증언은 참되도다."(요한 19,34-35 참조)라고 성서에 기록된 그 창을 상징한다.

성창은 삼각형 모양으로 보통 금이나 은으로 도금되어 있다. 봉헌된 빵에서 어린양과 성모님, 천사, 예언자, 여러 성인, 살아있는 이들과 안식한 이들의 몫을 자르고 떼어내며 성반 위의 모양을 갖추는 데 사용한다.

또한 어린양의 왼쪽 윗부분을 성창으로 찌르는데, 이는 주님 옆구리를 찌른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이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의 잔혹한 형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 다리를 부러뜨려 죽음의 과정을 서두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요한 19,36)라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사순절에 드리는 글

황경수 스테파노스 신부



가끔 사람들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길을 나설 때가 있다. 아마 이것은 창조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사람들만이 가지는 유일한 정서적 감정일 것이다. 자고로 어떤 동물이 이제껏 살아온 생명터가 고루하여 동지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아직은 들은 바가 없기에... 물론 일용할 먹거리가 부족해서 먹이를 찾아 나선 동물들은 많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동물의 삶의 본능이니까!

오늘의 세상은 재물이 삶의 필수과목이 되어 버렸고 종교와 신앙은 현대인들에게 선택과목으로 밀려난 지 오래인 것이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물질만능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선택과목으로 비중을 절하한 종교와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종교와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 즉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삶의 회고와 성찰을 위해서 길을 나선 그 나그네길 이상의 그 무언가를 신앙 속에서 답을 찾았을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리스도 신앙과 나의 관계 설정은 지금 어떤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서 나는 수시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기도 중에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각자의 신앙은 정서적 위로와 안정을 위해서 길을 나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신앙은?’하고 혹자가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무어라고 변증할 수 있을까? ‘정교회의 토양이 낯선 땅, 한국에서 왜 내가 정교회 신앙인이 되었는데?’ 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내 신앙은 성장판이 닫혀버린 미숙아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거울로 비추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추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냉담자나 낙오자로 이탈할 유혹 요소를 지니고 오늘날 관습적인 허울의 신앙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다.

신앙인은 인생의 나그네가 결코 아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 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통해 돌아갈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우리 정교회 신자들의 순례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통해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에...!

# 독일 정교회 주교들의 대 사순절 사목 서신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최** 근 독일의 정교회 주교들이 대 사순절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사목 서신을 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쟁과 위기, 불의로 얼룩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와 폭력,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참된 평화가 그저 무기를 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 영적 전쟁으로서의 금식

대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회개와 기도와 자선을 행하는 시기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금식과 회개와 자선의 행위들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교회의 부름을 받습니다.

“금식은 정교회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상으로서,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파토스\*들에 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 회개로 나아가는 길인 금식

금식은 회개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 영혼을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다줍니다.

“사순절은 되돌아오는 때입니다. 곧, 사순절은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 앞으로 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약하며 자주 넘어지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연대하는 것

주교들은 연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교회의 선교를 강조하면서, 또한 교인들이 병든 이들과 난민들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곧 병자들, 난민들, 박해받는 이들을 돌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신앙 때문에 차별과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금식하는 영혼

대 사순절 동안에 자주 드리는 ‘성 에프렘의 기도’\*\*는 사랑과 겸손, 하느님께로 마음을 여는 것, 기쁨과 희망으로 기꺼이 금식을 행하는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는 금식하는 영혼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금식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기간에 우리는 기도 생활의 깊이를 더하며,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초대 받습니다.”

\*파토스(πάθος, 영어로는 passion. 우리말로 정념[情念]) : 신학적으로는 ‘악으로 기우는 온갖 인간적인 욕망과 걱정’을 뜻함. 또는 루마니아의 신학자 드미뜨루 스펠로아에(1903-1993) 신부의 정의를 따른다면, ‘유한한 인간과 사물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가리킴.

\*\*시리아인 에프렘 성인(4세기 교부)의 기도 : 사순절 관련 의식서 및 도서 참조.

##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와
- \* 수요일(4/2)  
오전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 대까논 예배
- \* 금요일(4/4)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 대까논 및 성모 기립 찬양 예배  
이번 주 수요일(4/2) 오후에는 대까논 예배가, 금요일(4/4) 오후에는 성모 기립 찬양이 있습니다. 대까논 예배는 1년에 한 번 거행되고, 성모 기립 찬양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모두 중요한 예배이니 모두 참여 바랍니다.



## 알림

### ■ 부산 성당 축일을 보내며

성모 희보 축일을 맞이하여 지난 주말(3월 22일-23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대신부, 박인현 미하엘 교우, 니콜라오스 피나치스 교우가 부산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이 대주교, 로만 대신부, 알렉산드로스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고, 대주교님께서 성모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식 후에는 여성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며 영적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십자가 경배 주일에는, 십자가 경배 예식과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힘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고, 대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의 선교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알렉산드로스 신부, 파타피아 사모 및 일부 신자들에 대한 인터뷰 촬영도 있었습니다.

###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 성당 꽃 심기

다음 주일(4월 6일), 점심식사 이후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